# 살인 무더위 민생 챙기기 총력

## 심민 임실군수, 오수·덕치면 일대 축산농·무더위쉼터 방문 애로사항 청취

심 민 임실군수가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폭염 대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심 군수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오수면과 덕치면 일대 축산농가를 찾아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강력한 폭염대책을 주문했다.

심 군수는 지난 달 폭염피해를 입은 덕치의 한 축산농가와 오수면 농장을 방문하여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데 비지땀을 흘렸다.

이어 무더위 쉼터인 오수면 후리경로당과 강진면 부흥경로당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후리경로당과 부흥경로당은 각각 63명과 3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무더위 속 지역 주민들의 시원한 사랑방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심 군수는 경로당 어르신을 만나 "가장 더운 오후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온열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이라며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장방문을 통해 전해들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폭염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폭염으로 인한 관내 온열질환자는 총 4명이며,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피해는 4만2,063마리, 농어업 피해는 쏘가리 7만미가 각각 집단 폐사했다.

군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폭염 대응 유관부서 회의를 수시로 열어 분야별 피해 및 대책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관내 332개소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방문보건인력 및 노인돌보미, 이장 등 308명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들이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관내 터미널 4곳(임실, 오수, 관촌, 강진)에 얼음을 비치하고 있으며 임실, 오수, 관촌의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임실군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담당을 비롯한 4개권역(임실·오수·관촌·강진) 맞춤형복지팀은 노인과 장애인, 온열질환자 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352가구를 8월 한달동안 집중 방문키로 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을 세우고 희망복지지원단과 권역의 사례관리담당자들이 매

일 가정방문을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대상가구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등 안부확인과 함께 폭염대응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쿨매트, 휴대용 선풍기 등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 생활실태도 점검하여 공적지원, 민간복지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보건소, 소방서 등 기관과도 협력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달오름 전통테마마을이 청정한 자연환경 속 힐링 여행지로 알려지며 각광받고 있다.

# "자연 속 힐링 여행 떠나요~"

## 남원 인월면 달오름 전통테마마을 '인기'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달오름 전통테마마을(마을위원장 황태상)이 청정한 자연환경 속 힐링 여행지로 알려지며 각광받고 있다.

달오름 마을은 황산에서 이성계 장군이 어두운 밤에 왜구와 싸우면서 달을 뜨게 해 달라고 빌었더니 정말로 보름달이 떴다는 일화에서 달을 끌어올렸다는 뜻의 인월(引月)면에 위치해있다.

이곳에서는 예절 교육, 기체조, 다도 체험, 농사체험을 비롯해 박바가지에 먹는 비빔밥, 달 떡 만들기 등의 먹거리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지리산 둘레길 코스 초입에 있어 지리산 트래킹도 가능하다.

특히, 달오름 마을은 달을 소재로 한 각종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단체 숙박시설이 마련된 6차 산업 체험관광 특성화 마을로, 고사리, 야콘 등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 지원하는 전통테마마을, 농촌체험 명품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면서 체험과 서비스 사업을 더한 6차 산업으로 확장되어 연간 3만명이 찾는 유명한 마을로 자리 잡았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의 화려함을 벗어나 지리산이라는 지역 특성과 농촌만의 건강함을 느끼고 싶다면 일단 방문해보기를 권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힐링 농촌 마을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폭염에 가뭄까지… 죽어가는 농작물 어쩌나

## 순창군, 다각적 해결책 모색
## 농기계 기동 수리반 운영
## 작목별 피해상황 파악 나서

순창군이 폭염과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양수기 등 농기계 현장수리 기동반 운영을 비롯한 다각적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군은 지난 3일부터 가뭄해소시까지 농기계 수리기동반을 편성해 읍면사무소 보유용과 농가 양수기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수기와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한 관수작업을 위해서다. 군은 각 면에 양수기와 동력분무기를 이용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농작물에 물을 대는 활용법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또 가뭄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별 피해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 및 작물별 대책마련에도 나섰다.

우선 516.7ha에서 재배되고 있는 콩에 대해서는 35도가 넘는 고온지속됨에 따라 수정불량으로 인해 수확이 25% 내외가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재배 포장 고랑에 물 유입, 밭재배포장 스프링클러를 이용 관수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240ha 재배면적인 고추는 고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및 낙화 및 낙과발생, 석회결핍과 발생 칼리병, 햇볕에 의한 일소 현상 발생 증가로 15~20%정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 유도해 토양 적습을 유지하고 생육이 연약한 포장에는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 엽면살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깨, 들깨는 고온지속시 화분수정 및 등숙률 저하로 기름함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양 피복 및 관수실시, 엽면 시비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고온기 온도하강 효과가 있는 쿨네트 사업을 추가지원 검토하기로 했다. 특용작물인 아로니아는 관수 및 부직포 사용 유도 요소, 아미노산 500배액 엽면 살포를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내년 보조 사업에는 관수 시설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미 간부회의시 폭염과 가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매일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비상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황숙주 군수는 "지속적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과 직원을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주거 빈곤 아동 해결방안 머리맞대

## 남원-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솔루션 회의 개최

남원시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에 관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전격 폐지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사람이 사는 공간, 살기 위해 필요한 공간인 주거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부 방침으로, 남원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관내에 있는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해 솔루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일 1차 솔루션 회의를 가졌다.

이는 작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집짓기 캠페인 '내 마음 속 愛 집이 나타났다'의 진행 과정에서 남원시와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가진 것이다.

솔루션 위원회는 남원시, 재단, 학계, 기업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1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필요한 자원발굴을 위해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전망이다.

남원시 희망복지계 정하율 계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거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물적, 인적자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갖고 추가적인 복지대상 발굴 및 복지자원 개발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메아리

## 남원 모범업소 20일까지 접수

남원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6일부터 20일까지 모범업소 신청을 접수받아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영업장 전경과 대표메뉴 사진을 함께 남원시보건소(위생안전담당, 620-7930~2)에 접수하면 된다.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이용안내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출입 검사면제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게시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와 식중독예방 물품,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남원시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가 우수한 모범업소를 매년 10월 1일 정기 지정하고 현재 4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남원시지부(625-4442)로도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장류축제 체험부스 모집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남)에서는 올해 13번째를 맞이하는 순창장류축제 기간에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각종 체험·홍보 부스 운영자를 오는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부스 모집 참가자격은 순창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된 업체로,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가업체는 텐트, 테이블, 의자 등에 대한 임대료, 제반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먹거리의 경우는 순창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 대표메뉴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앞치마 등 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이 있다.

각종체험, 홍보 부스는 공익 또는 축제 주제(장류)와 부합된 체험 등을 제공하는 단체 및 업체를 선발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장류축제 홈페이지(www.jangfestiv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순창장류축제 홈페이지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www.sunchang.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군청 2층 문화관광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aster0920@korea.kr)이나 팩스 063-650-1629로 접수해도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